

1. 철장 권세

2. 성자 예수님과 교통해야 산다

본 문 요한계시록 2장 25-28절

* 설교 내용 중에서 빨강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강하게 외치며 전할 것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은 ‘성자 예수님과 교통해야 산다’입니다. ‘통하는 것’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성자 예수님과 통하고 그 보낸 자와 통해야 신앙이 안 죽고 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통하는 것일까?’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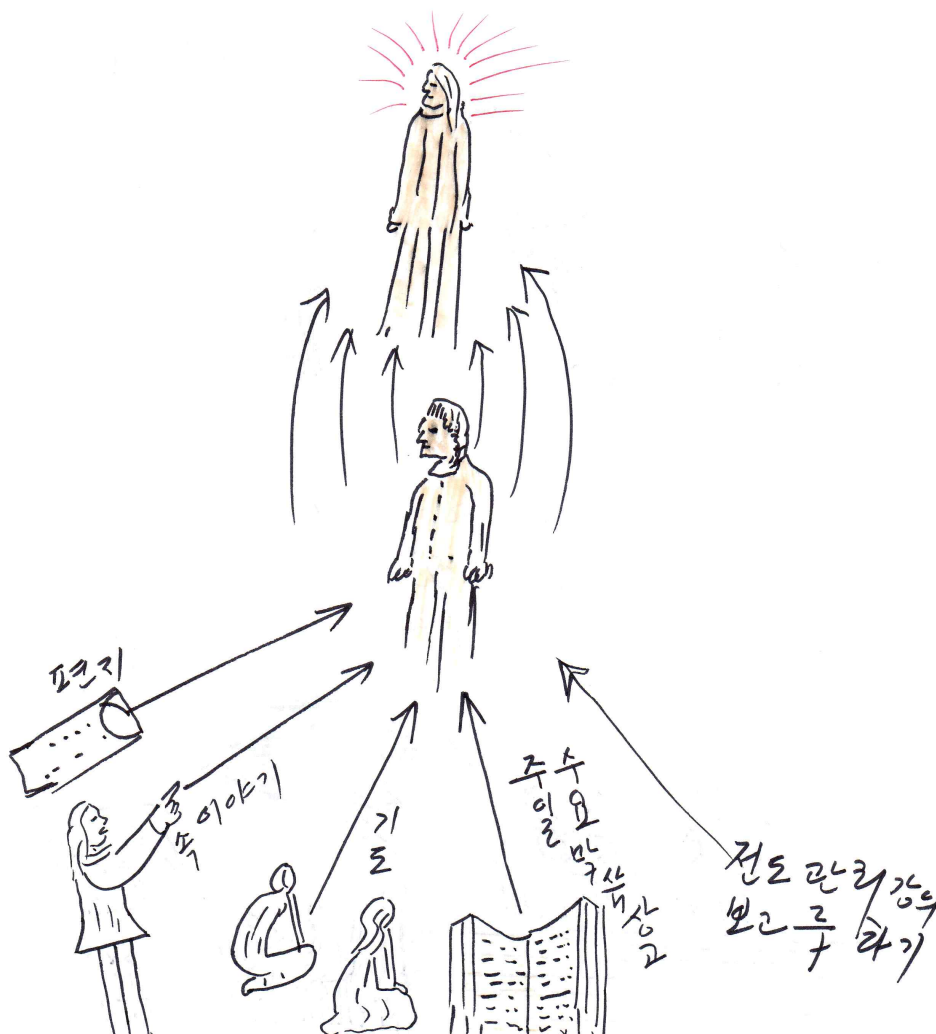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어떻게 해야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일까요?

- 주님의 몸으로 쓰이는 선생과 편지하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최의 무거운 짐도 없애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이시니,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는 자가
주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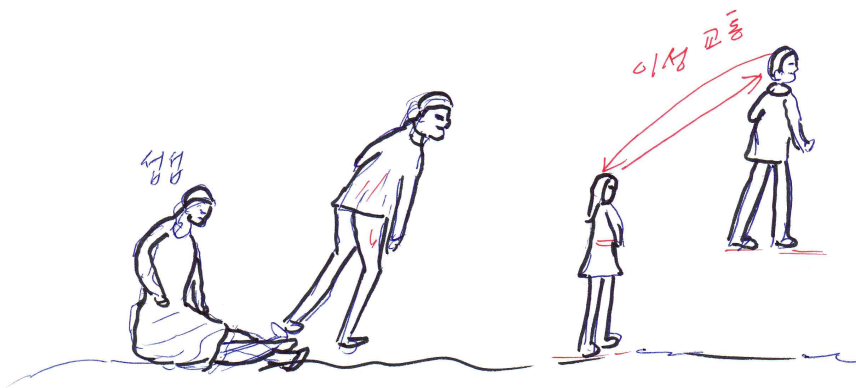
- 기도를 깊이 하며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께 자기 속도 다 털어 놓고, 사연을 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 성자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 주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 생명을 전도하여 가르치며 진정 관리해 주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 성자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쓰시게 해 주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상1 끝>



(* 그렇다면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2>

죄를 짓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진정 회개하지 않는 자, 계속 거짓말하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서운하게 생각해 버리고 사는 자, 자기를 위해 깊이 기도하지 않는 자, 이성의 마음을 갖고 이성의 행실을 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육과 함께 신음하다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되어 신앙이 죽어 버립니다. <영상2 끝>



신앙이 한 번 죽으면 영도 마음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성자 예수님과 통하고 그 보낸 자와 통해야 살아납니다. 생명의 세계인 섭리사에서 죽어 나가는 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죽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연적으로 변질되어 죽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과 선생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사탄이 악한 마음을 주관하여 죽어 나가기 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들이 죽어 나가지 않고,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생명을 관리할 때 ‘말씀’으로 근본적인 관리를 해 주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 그 영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 나갑니다. 분위기 관리와 먹고 마시는 관리를 중시하고, 인간적인 대화 관리가 습관이

들면, 그 영혼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고로 그 생명은 갈대같이 흔들거리며 자랐기에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어도 나갑니다. 그런 관리자는 자기도 그 주관권에 들어가니 자기도 모르게 곤고함에 빠지게 되고, 언젠가 그 영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상3 끝>



섭리사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치어, 모델, 예술단들은 지도자들까지 예술만 중심하다가 말씀을 깊이 못 들어 근본적인 힘이 약합니다. 고로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어도 일반인들보다 강의도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큼니다. 앞으로 치어, 모델, 예술단들 중에서 엘리트는 따로 빼내서 ‘말씀’을 근본으로 배우게 하여 선생이 직접 지도자를 기를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치어, 모델, 예술단 등 특수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술로는 발달했는데 선생의 대를 이어 성자 예수님의 몸이 될 자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강의를 잘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목회지로 내보낼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선생도 이를 확신하고 그러하다고 봅니다.

‘말씀’이 가장 큰 권세요, 표적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절대적인 말씀 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말씀 위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강철 같은 강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영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육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주인공들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말씀을 안 받았으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도 구원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전해 2000년 동안 구원받게 역사를 펴 왔고, 그를 메시아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 외쳐 그 시대를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선생도 주님께 이 시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가련한 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주님과 강철 같은 사랑을 했고, 주님께 이 시대 사명을 받아 힘차게 외치며 인생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부흥강사도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대 말씀’으로 성장하며 주님과 선생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고로 지금 선생의 몸이 되어 불같이 말씀을 외치고 성령의 역사를 펼쳐 나가며 시대 사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섭리사의 계시자들도, 강사들도 말씀으로 빛을 받고 있습니다. / 역시 말씀이 권세요, 기업이요, 주권입니다. 말씀을 받아 외치는 자에게 권세와 주권이 돌아가고, 그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영상4 끝>

치어, 모델, 예술단뿐 아니라 모두 ‘시대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확실히 주장하며 강의할 정도가 되어야 그 영혼을 볼 때 마음이 놓입니다. 시대 말씀의 근본을 모르고 산 자들은 한결같이 섭리사에서 신앙이 죽어 나갔습니다.

섭리사는 ‘강의의 달인’이 너무 별로 없습니다. 각 교회 교역자들, 각 부서 지도자들, 예술단 지도자들은 자기가 먼저 ‘시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한 후에 말씀을 근본으로 전해 주면서 모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간 후 즉시, 특히 예술단 지도자들과 특수 부서 지도자들은 ‘말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고로 기본적인 것과 확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모두 배우게 할 것입니다.

기본 말씀을 안 배우면 힘이 없습니다. 기본을 배우지 않고 특수한 것만 배우면 힘이 없습니다. 특공대들도 먼저 기본 훈련을 받은 후에 그 터전 위에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특공대가 된 것입니다.

이 수련을 거쳐서 수료장을 받은 자들만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말씀 수련회 이후에 한 달 동안 ‘공직자 실습’까지 합니다. ‘공직자 실습’은 각 교회에 다니면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점도 할 것인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빛을 받으며 신앙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강의를 잘하는 교역자들과 강사들 20명을 한 달 동안 말씀 수련회 강사로 쓸 것이니, 강의를 잘하는 자들은 교단 교육국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또 추천해서 올려 주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선생이 섭리사의 영적 상황을 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섭리사에서 예술단에게 선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선생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예술단들 중에서 신앙으로 죽어 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속상합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술인들도 지도자들도 시대 강의를 제대로 깊이 못 한다. 인간적인 대화 관리는 한다. 자기 방법과 자기 식의 대화를 마치 나의 계시와 말씀처럼 전하며 먹는 분위기로 생명을 관리한다. 모두 썩은 관리다. 모두 그같이 습관이 들었으니 실력을 쌓도록 가르쳐라. 말씀의 무기를 새총으로 무장시키니 새나 잡지, 큰 짐승은 못 잡는다.” 하셨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섭리사에는 똑같이 한 주관권에서 살지만 그 행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급>은 예술인, <4급>은 관리자와 전도자, <3급>은 가르치고 강의하는 자, <2급>은 계시받는 자와 섭리사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자와 성전을 관리하는 자, <1급>은 집회를 하며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세계 각 나라 모두 교단에서는 치어, 모델, 예술단들을 책임지고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신앙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시대 말씀을 확실히 배워서 예술인보다 섭리사 강사와 교역자로 쓰여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술단은 예술에는 30% 비중을 두고, 말씀에 70% 비중을 둘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5>

<성자의 말씀>

너희가 나 성자와 통하지 않으면 나의 신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이 병들어 신음하다 죽는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증거하면 강철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된다. 그 터전 위에서 나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로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새벽 잠언, 성령집회 말씀, 기타 너희 선생을 통해 준 모든 말씀, 계시자들을 통해 나 성자가 준 계시를 ‘영혼의 양식’ 으로 삼고 매일 듣고 행하며 살아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뿌리가 약한 나무를 보아라. 나무의 근본인 뿌리가 약하니 하루하루

죽어 들어간다. 혹여 열매를 연다 해도 실하지 못한 열매를 연다. 이와 같이 말씀의 근본을 확실히 모르고 사는 자는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하루 하루 신앙이 죽어 들어가 그 영이 바짝 말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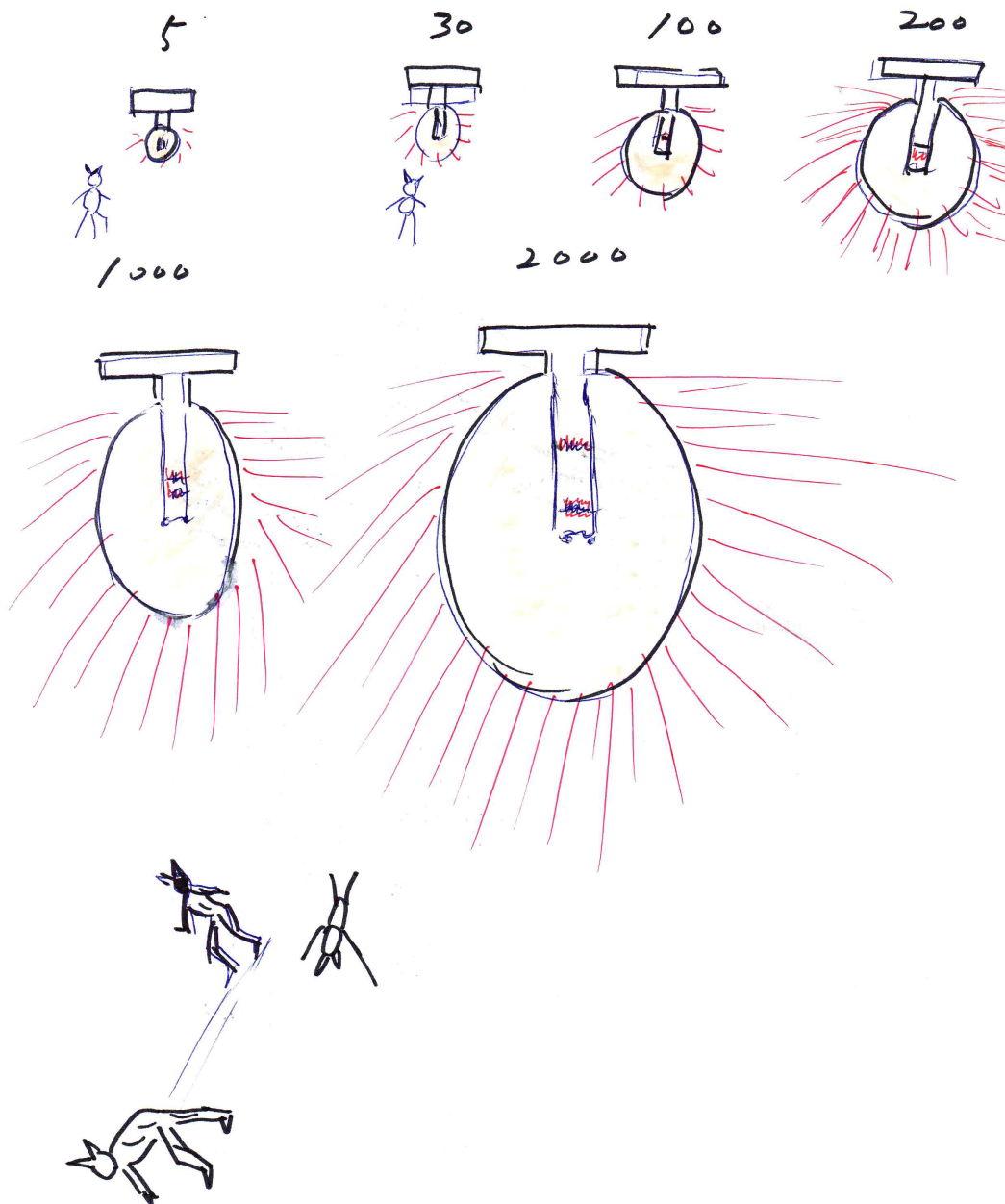
반면 뿌리가 강한 나무를 보아라. 나무의 근본인 뿌리가 강하니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열어도 실한 열매를 연다. 이와 같이 말씀의 근본을 확실히 알고 사는 자는 신앙의 뿌리가 강하여 그 영이 튼튼하다.



나 성자와 통하는 데 최고 기본은 ‘말씀’ 이다. 말씀의 배선이 굳건하게 깔리면, 말씀의 선을 통해 사랑의 고압전기가 흐른다. 말씀의 근본이 없는 사랑은 약하다. 축복도 늘 말씀을 통해서 간다. 말씀을 근본으로 해야 축복도 안 뺏긴다.

말씀의 근본이 없는 자는 가다가 시험에 들면, 태풍에 나무들이 쓰러지듯이 일순간 쓰러진다. 말씀이 머리에 꽂 차지 않은 연고다.

각자 ‘말씀의 빛’ 의 강도를 보아라. 5촉(W, 와트)이나. 10촉이나. 30촉이나. 60촉이나. 90촉이나. 120촉이나. 혹은 2000촉이나. 너희는 어느 선에 있는지 보아라.



너희 선생이 시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외치듯 외쳐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죽지 않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그 영혼을 볼 때 마음이 놓이고, 섭리사에 생명들이 구름 떼같이 몰려와 부흥된다. 말씀의 근본을 아는 것이 나 성자와 통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같이 모두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말씀에 총집중 해서 외치고 전체를 가르쳐라. 시범 교회, 중심 교회를 따라서 해라.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고 담대하며 굳건하다. <영상6 끝>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술단들을 전도하여 힘들게
길러도 신앙이 죽고 많이 나간다. 그러니 내 심정이 상한다. 모두 시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연고다. 고로 앞으로 특수 부서에 있는 자들은
나 성자가 앞에서 선생을 통해 말한 것같이 시대 말씀, 재림 말씀, 역사
말씀, 선생의 사명, 성자의 재림, 신약역사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확
실히 배워라. 모두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모두 모여 역사
에 대해서 배워라.

스타들아. 너희들의 유산이 무엇이며 재산이 무엇이나. ‘시대 말
씀’ 이다. 예술단들아. 너희들의 유산이 무엇이며 재산이 무엇이나. ‘시
대 말씀’ 이다. 말씀을 귀히 듣고 귀히 여기는 대로 외치게 된다. 나 성
자는 시대 말씀을 귀히 듣고 귀히 여기는 대로 ‘사명’ 을 주고, ‘물질
축복’ 도 주고 ‘사랑 축복’ 도 해 주련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너희 선생은 ‘말씀’ 때문에 이 시대와 너희를 구하는 능력을 받았
고, 나의 분체가 되었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가 되었다. <영상7 끝>



전능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나. 그 말씀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나. 시대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가 되고, 시대 말씀을 받은 자에게 나 성자가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 별을 주고, 그에게 최고의 권세를 준다. 말씀과 사랑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요한계시록 2장 25-29절 말씀과 19장 15-16절 말씀을 읽어 보자.

(계 2:25-29)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19:15-16)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시대 말씀’ 이 그리도 권세 있고 귀하다. 너희가 그 권세 있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전심으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 성자가 보낸 자가 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 세계가 흔들리지 않느냐. 그 말씀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 고로 시대 말씀을 귀히 여겨라. 그래야 간절히 사모하여 배우게 되고,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꼭 알아라. ‘하늘의 온전한 시대 말씀’은 시대 사명자가 있는 곳에만 있고, 나 성자가 말씀을 준 자만이 가지고 있다. 고로 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너희 선생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술인들이 모두 시대 말씀을 배워서 많은 자들이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술단 중에서는 강의를 잘하는 자들도 없고, 목회를 하는 자들도 없고, 그저 예술의 옷만 입고 있다. 고로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힘이 없을 뿐더러 신앙이 죽어 나가는 것이다.

모두 배우고 터득하여 강의의 달인이 되어 전심으로 외쳐라. 선생의 제자라면, 이 시대 나 성자의 신부라면, 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나의 육신이 되어라! 그리하면 절대 신앙이 죽지 않는다. 전도도 3배로 많이 된다. 죽도록 전도해 와도 분위기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치어나 모텔 등 예술 무대로만 뛰고 달리니 힘이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예술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 선생에게 나의 기업으로 물려준 것이 있으니, 곧 ‘시대 말씀’이다. 고로 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나의 기업을 받게 된다. 조은 목사도 말씀의 기업을 받으니, 나 성자와 선생이 위급하고 심정 탈 때 단상에서 말씀을 외쳐 나의 몸과 선생의 몸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그 몸이 일곱 개라도 모자라다. 모두 조은 목사같이 되면 민족과 세계를 잡아 나가고 사탄을 굴복시킨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너희 선생’을 확실히 모르고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몰라서 나간 것이다. 알았다고? 아니다.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역사를 저버리고 나가겠느냐. 몰라서 그런 것이다. 10년, 20년씩 됐어도 제대로 몰랐다. 명예, 사명으로만 산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명으로만 떠서 살고 말씀의 근본이 머리에

안 차 있으면 신앙이 죽어 섭리사를 나간다. <영상8 끝>



모두 한 달, 두 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수련하여 강의의 달인이 되어라. 아는 만큼, 외치는 만큼 나 성자와 통하고, 능력을 받고, 나 성자가 더욱 역사한다.

너희 선생에게서 내가 보고받을 것이니 치어, 모델, 예술단 지도자들과 특수 부서 지도자들은 30개론 강의와 요즘 내가 섭리사에 핵심으로 전해 준 성자 말씀과 재림 말씀에 대해서 배워라. 청중에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은 교육국 통해서 올려 주어라.

지도자들은 ‘말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들을 ‘말씀 무장’시켜 줘야 된다. 분위기로 관리하면 약해서 힘이 없다. 자기 대화법으로 관리하면 생명도 쓰러지고 결국 자기도 쓰러진다. 그러다가 나와 선생이 길러 놓은 생명을 사탄의 밥이 되게 한다. 정신 차려라!

앞으로 교역자들은 생명들을 전도하여 치어, 모델, 예술로 연결하지 말고 ‘말씀’으로 연결하여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고, 섭리사의 공직자로 사명을 주어 섭리 강의 교수들을 만들어라. 이것이 나 성자가 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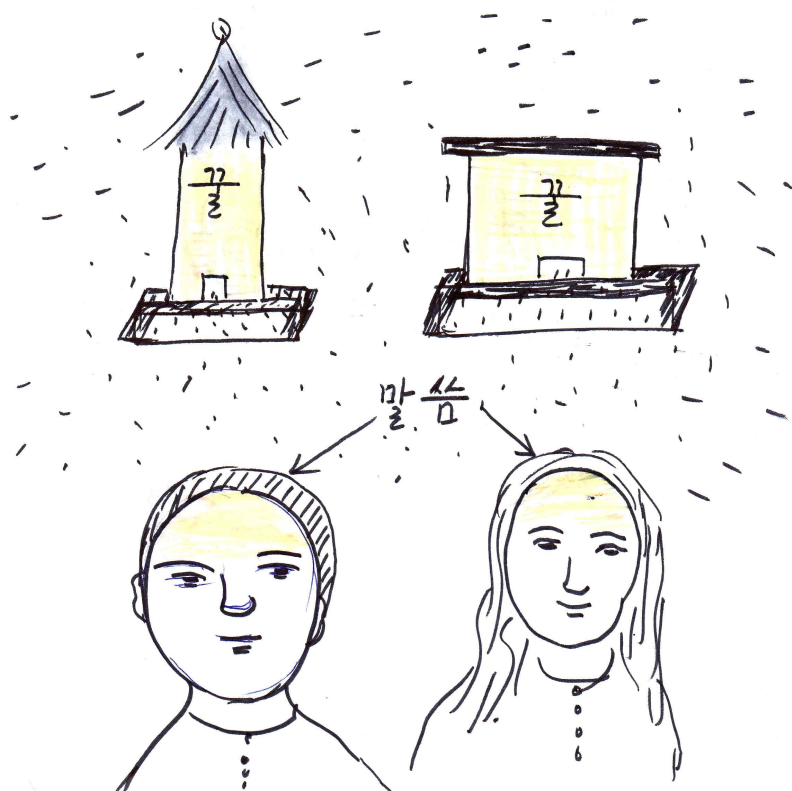
중고등부도 시대 말씀을 확실히 배우면 대학부보다 다 큰 청년보다 신앙이 강하다. 고로 중고등부에게도 말씀의 근본을 가르쳐야 된다. 어리다고 편안하게 먹는 것과 분위기로 관리하다가 결국 생명이 유실된다.

어렸을 때부터 시대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 근본을 탄탄하게 해 주고, 강의할 정도로 키워야 된다. 길러서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 시대 말씀을 다시 깊이 듣고 마지막으로 차원 높여 변화되어라. 시대 말씀을 들었으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하고, 행해야 하고, 더 차원 높여 강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강의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 래야 나 성자와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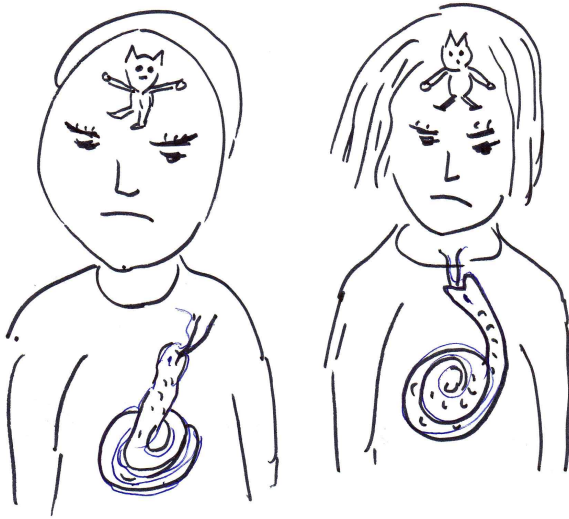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말씀이 꿀과 같다. 너희는 이 시대 왕벌 조직의 벌들이다. 고로 벌꿀을 먹어야 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벌통에 꿀을 꽉 채우듯, 너희 머리와 마음에 말씀의 꿀을 꽉 채워라.



거미줄만 쳐져 있고 비어 있는 벌통은 벌이 역사를 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머리와 마음에 시대 말씀이 차 있지 않고 다른 생각만 차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머리와 마음에 받아들여 쌓는 데 역사를 안 한 자다. 나 성자가 영 재림을 하기 전에 너희 선생을 통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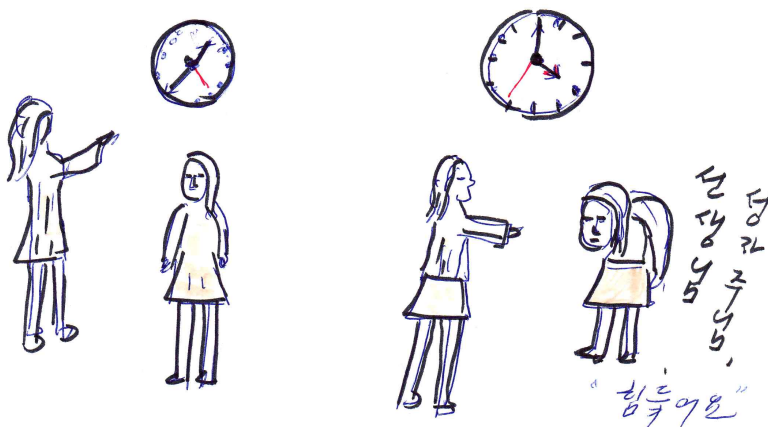
많이 주었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귀히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자들과 들었어도 외칠 것이 없는 자들은 골 빈 자요, 마음이 빈 자다. 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사탄이 산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강의하여 내보 보면 안다.



<전환 :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섞어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관리하는 자들은 마치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을 먹이는 것과 같다.

어떤 지도자는 자기 주관이 섞인 가짜 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밑의 사람들과 자기가 관리하는 자들과 어린 생명들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생명들은 성자에 대한 것과 선생에 대한 것과 시대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만났으나 2~3시간 동안 다른 말만 한다.



그러니 그 지도자를 만난 자들이 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고 하며 피해 다닌다. 그리고 내게 기도하기를 “주님 자기 말, 자기 주장만 길게 하는 지도자들은 제발 안 만나게 해 주세요.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저는 말씀 때문에 섭리사에 온 사람이에요. 예술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 예술 부서 말고, 다른 부서 갈래요. 말씀 부서 만들어 주세요.” 하며 공포심에 기도한다.



내게 기도해도 그 지도자는 계속 고치치 않고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모임 때나, 순회 때 만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고로 나 성자가 그에게 감동을 주어 선생에게 보고하게 했다. 그래서 즉시 내가 선생을 통해 그렇게 못 하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 “그래도 안 고치면 곧 교체하마. 예술단 지도자들이 말씀이 약하다. 즉시 실행하마.” 하고, 내 육을 통해 속 시원히 편지해 주었다. <영상9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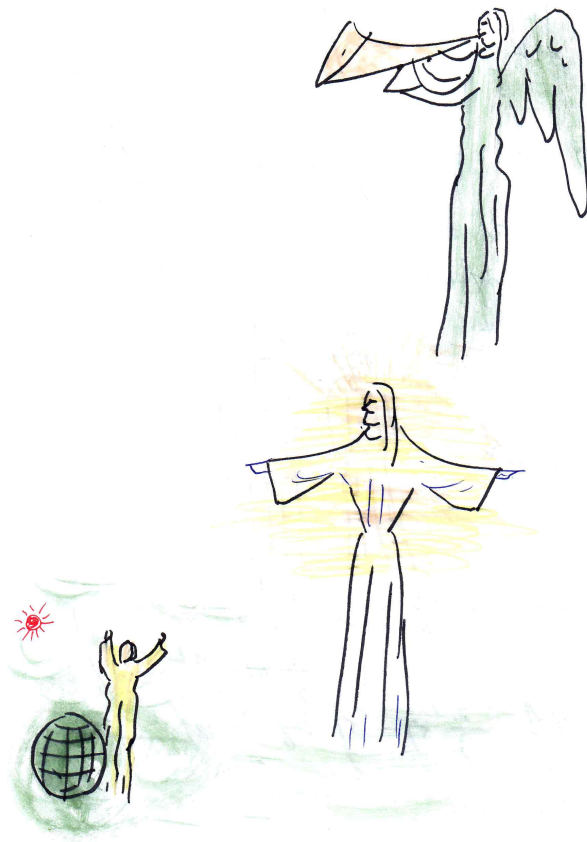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 말씀 그릇이 비어 있으니, 이 급한 재림의 때 생명들을 만나도 늘 자기 이야기나 하고 지겨운 소리나 하는 것이다. 고로 내가 선생을 통해 이런 자들은 모두 교육시키고 교체하라고 했다. ‘말씀’이 그리도 귀하다. 시대 말씀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꼭 채우고 다니는 자는 나 성자와 선생을 항상 품고 다니는 자다.

스타들과 예술단들은 겉모습만 단장하며 자랑 말고,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배우고 모두 강사가 되어 강의하고 외쳐 주어라. 이것이 나 성자

의 소원이며, 너희 선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멋진 사람들이 멋진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 모두 조은이같이 하여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말씀이 나 성자다. 말씀이 하늘 기업이다. 말씀이 하늘 유산이다. 지도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2012년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고 깨달아라. 휴거 직전이다. 그런데 예술단들과 스타들이 말씀에 약하니 휴거에 미달된 자들이 많다. <영상10 끝>



인간적인 분위기로 관리하면, 10년이 가도 그 영과 육이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다. 영혼 죽이는 관리 하지 말아라. 말씀을 넣어 주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관리하니 그 영혼이 그늘진 곳에 있다. 나 성자의 방법, 선생의 방법으로 해야 승리한다.

강의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행하는 자는 그 영과 육이 사랑으로 크게 빛이 난다. 외모의 빛은 육의 눈으로 볼 때만 빛난다. 이들이 시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외치는 차원에 올라야 영도 육도 빛난다.

말씀이 유산이요, 기업이요, 권세요, 능력이니 말씀을 근본으로 가르치고 배워라. 이것이 나 성자의 애타는 명이다. 지켜 행하여라.

선생의 영이 왜 그리 빛나는지 아느냐. 시대 말씀으로 인한 사명의 빛이다. 말씀의 빛이다. 너희 선생은 매일 하루 17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이 없으면 사명의 빛도 안 나는 것이다.

모두 ‘시대 말씀’을 못 들어서 영혼이 죽어 사망권에 처해 사는 것이다.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고 믿게 하면 즉시 사망에서 나온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성자요, 성령님이요, 선생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 머리에 꼭 찬 자는 사람으로서 신이 된다. 교역자가 되려면 강의의 달인이 되고, 설교의 달인이 되고,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교역자라도 못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노력하여 자기 머릿속에 진리는 안 들여보내고 이성만 생각하는 자들아. 나 성자가 지금 보고 있으니 모두 회개하여라. 내가 책망한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섭게 충격 받을 일이 닥친다. 어서 너희 주관을 비우고 너희 마음에 ‘시대 말씀’을 꼭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전능자 성자의 말씀이다.